의약분업		번호: III - B - 8
제 목	국문	모의 설사환자에 대한 약국의 약판매행태
	영문	DRUG RETAILING BEHAVIOR OF PHARMACIES TO THE SYMPTOM ADDRESSING OF MOCK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고광욱[1], 장세권[2], 박시운[2], 정상혁[4], 이선희[4], 정우진[5], 신의철[6], 황진미[7] 1)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2) 한국누가회, 4)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6)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7) 인천기독병원 임상병리과
	영문	Kwangwook Koh[1], Sekwon Jang[2] Si-Woon Park[2], Sang Hyuk Jung[4], Sun Hee Lee[4], Woojin Chung[5], Euichul Shin[6], Jinmee Hwang[7]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2)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4)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5)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6)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7)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Incheon Christian Hospital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고광욱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1. 연구목적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조사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상대적으로 소홀이 취급되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행태를 분석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세균성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모의환자가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통합시) 지역, 농촌지역(군지역)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으로 196개의 대상 약국을 선정후 모의 환자가 직접 방문조사하여 수령하여 온 약품을 분석함.

3. 연구결과

196개 약국 중187개소(95.4%)에서 어떤 형태로든 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약국 1개소당 판매한 약품의 종류는 평균 1.6종 이었다.

약품의 종류는 140종으로 약국 1개소당 평균 1.6종의 약품을 판매하였다.

3개소 이상에서 구입가능하였던 다빈도순 의약품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약품 성분을 중심으로 대분류하면 8종으로 분류가능하였는데 복합생약제재류(한방제재)와

loperamide 포함 않은 복합 지사정장제류가 가장 많았다. 3개소 이상에서 판매된 약품의 상품명과 그 대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1개소의 약국에서만 판매된 약품이 94종으로 전체 약품종류 140종의 90.1%를 차지함.

표. 3개소 이상에서 판매된 약품의 대분류와 그 상품명

---

1) loperamide 포함않은 복합 지사정장제 : 7종

디앤탑(33개소), 타리노(10개소), 큐다이스(6개소), 산베린(4개소),비스베린(4개소), 루피돔(3개소),비스카 (3개소)

2) 복합생약제재(한방제재)

장나환(8개소), 한풍올가과립(5개소), 장생환(5개소), 나설아환(4개소) ,반하사심탕(4개소), 윤장환(3개소)

3) loperamide 포함않은 복합 지사정장제 : 5종

두플레(10개소), 로페놀(9개소), 로페라민(5개소), 로프민(4개소), 디아로펜(3개소)

4)살균성 지사제(NIFUROXAZIDE)

에세푸릴(6개소), 자이드(3개소)

5) 드링크류

생록천(6개소), 일청액(4개소)

6)기타

후라베린큐(8개소), 락테올(3개소)

---

4. 고찰

1개소당 약품 판매 종류는 이전 연구들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보임.

생약제재의 판매 비중이 2위로 나타나서 증가된 것으로 보임.

1개소의 약국에서만 판매된 90.1%(94종/140종)으로 소비자의 약선택보다는 군소 제약업소의 유사상품의 과잉 생산을 시사함.